

## HOLY HABIT MOVEMENT PART 3

### 3. 배려 - 이웃 사랑의 시작

1. 지나치게 솔직하면 듣는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배려하면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솔직함과 배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 당시 다니엘은 바벨론 왕에게 소속된 무당과 주술사, 점성가들의 관리자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세워진 신상과 매일 자행되는 우상 숭배 행위를 보면서 다니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가운데서 다니엘은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그들을 정죄하거나 혐오스러워하며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원망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 하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죄에는 엄격했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에게는 누구보다도 솔직하고 정직했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타인의 죄에 대한 심판과 평가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달려 있음을 알았기에 누구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폭군이었던 느부갓네살에게 징계와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할 때 “한동안 놀라며 마음에 번민하기도 하며” 진리일지라도 정죄의 말로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자신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와 타인에 대한 태도를 다르게 취해야 합니다. 특히 타인에게 진리를 전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으로 말하는 것”입니다(엡 4:15).

2. 전도할 때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좋은 방법일까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며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 하나님의 마음(사랑)을 담아 복음을 전하는 예시

❶ 부정적 개념보다는 긍정적 개념으로 마음 열기

현재 삶의 행복도와 같은 보편적인 인생에 대한 주제를 통해 진정한 행복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제시하고, 그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하게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도록 권면합니다.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현재 삶에서부터 무한하고 풍성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제시합니다.

## ❷ 그러나 죄인이라는 개념(진리)은 반드시 설명하기

죄와 사망의 문제는, 인생에서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임을 제시합니다. 다만 초신자의 경우 성경 교리적으로 깊은 이해를 갖기는 아직 어려운 대상이므로 원죄(아담으로부터 유전되는 죄성)의 개념보다는 일반적으로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자범죄(죄성으로 살면서 스스로 짓는 죄)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 ❸ 믿음은 행위가 아닌 ‘선물’(엡 2:8-9)임을 강조하며, ‘지금’ 영접할 수 있는 질문하기

진정한 행복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이 믿음은 우리의 의지가 아닌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한 후 반드시 ‘오늘, 당장,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모실 것인지 질문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설명합니다.

-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그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전해야 하며, 또한 선물로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거저 받았으나 단순히 받음으로 끝이 아닌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여길 수 있도록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로 나와 바른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시간과 정성을 들여 기꺼이 섬겨야 합니다.
- 상대방의 입장에서 헤아린다고 하여 진리를 모순되거나 가리키는 말아야 합니다. 다만 유순한 말로 지혜롭게 복음을 오해하지 않도록 성경적으로 전해야 합니다.

3. 자기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는 행위를 가리키는 ‘갑질’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불편한 얘기를 꺼내야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지혜로운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 특히 ‘갑질’은 단순히 권력 남용을 넘어 상대방을 인격이 아닌 도구로 여기는 비인격적인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자신이 당하는 위치에 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하는 위치에서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기에 소위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문제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겸손으로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 ❶ 먼저 ‘말하기 전에’ 해야 할 준비 : 감정이 아닌 목적을 점검하라

지금 해야 하는 말의 목적이 단순히 나나 공동체 안에서의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공동체나 관계 개선과 회복을 위한 것인가?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할 때 분노, 시기, 질투 등 부정적 감정으로 담아 말하기보다 공적 유익이나 신앙적 유익이 목적이기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 ② 말을 전할 때 ‘방법과 태도’를 깊이 생각하라

먼저 무엇을 말할 때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보다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상대방을 최소한으로 배려하는 일입니다. 또한 지난 일들에 대한 지적이 아닌 당시 상황과 사실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이 모든 대화는 ‘이기는 대화’가 아닌 ‘살리는 대화’이므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열어놓아야 합니다.

- 결론적으로, 1) 반대 의견을 낼 때 2) 문제점을 지적할 때 3) 보상을 요구해야 할 때 등 이 모든 대화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존중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드러나는 말만 오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 4. 내 주변에 명백한 죄를 지은 누군가가 있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 진정한 배려는 타인에 대한 사랑이 담긴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느부갓네살은 분명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지만 다니엘은 함부로 그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죄의 심판이 왕에게 임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그가 변화할 기회를 얻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혜의 사람 다니엘은 자신의 뜻을 전달할 때도 과격한 말보다는 유순한 말로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 만약 내 주변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돌이키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내가 그 사람에게 권면을 할 자격이 있는지 먼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마 7:3-5). 감정적이거나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다면 목적이 온전할지라도 상대방은 그 목적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죄를 ‘덮어주기’보다 ‘회복시키기’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갈 6:1). 이때 “당신이 잘못했다, 틀렸다”는 말보다는 “당신이 그 일을 바로 세우길 원한다”는 회복과 권면의 말로 다가가야 합니다.

## 1.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 말을 덧붙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 느부갓네살왕으로부터 꿈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은 곧바로 소스라치게 놀라며 번민합니다. 왕의 신변에 큰 변고가 일어날 것을 즉각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자신의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왕의 입장을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놀라지 않도록 그 꿈이 좋지 않은 내용이라는 것과 꿈의 뜻이 자신의 뜻과는 다르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왕이 아닌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 따라서 다니엘이 “당신의 대적에게 이 일이 임하기를 원한다”는 말은, 왕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속히 돌이켜 회복하길 바라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2-3. 날카로운 말로 누군가를 속상하게 한 경험을 말해 봅시다. 또한 누군가의 말로 내가 상처 입었던 경험을 말해 봅시다.

- 친구나 동역자에게 무심코 던진 말이나 다른 일로 마음이 심란하다가 나도 모르게 상관도 없는 가족에게 예민한 말을 쏟아낸 일에 대해서 나누어 봅시다.

### • 나눔 가이드

#### ❶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으로 가볍게 시작하기

“최근 누군가의 말 한 마디에 힘을 얻었던 적이 있나요?”

“반대로, 말 한 마디 때문에 마음이 심란하고 무거웠던 적이 있나요?”

#### ❷ 단 4:19를 포함하여 말에 관련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잠 12:18, 칼로 찌름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약 3:6,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 ❸ 질문하기

“가장 최근 내가 무심코 한 말로 누군가를 속상하게 한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감정, 상황,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도 생각해봅시다”

“만약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말하고 싶은가요?”

#### 4.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다른 가족에게 먼저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마 7:12)

- 가정은 말로 가장 쉽게 상처를 주고, 또 말로 가장 쉽게 회복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그 한 마디는 바로 내 가족이 듣고 싶은 한 마디입니다. 그것을 먼저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이며, 결국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입니다. 사랑이 담긴 나눔 이후 마지막은 기도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기도문]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믿는 한 믿음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배려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로 가족과 사람들에게 선한 말이 아닌 악한 말을 내뱉었던 지난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내 입에서 사랑의 말과 회복의 말, 권면의 말이 흘러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더 나아가 내가 듣고 싶은 그 위로의 한 마디, 사랑의 한 마디를 먼저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주세요. 그렇게 가정이든 이웃이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위로의 전령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 닮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